

-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들은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려고 행동의 장에 왔다. 너희는 반드시 행위를 행해야 한다. 영혼들의 본래의 종교는 평화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화를 달라고 하지말고, 원래 너희들의 종교에 안정해 있어라.
- 질문:** 아버지는 예정된 드라마를 알지만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나?
- 대답:** 아버지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도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내일 지진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그가 오늘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이 얘기를 한다면 드라마는 진정한 것이 아닐 것이다. 너희는 초연한 관찰자로서 모든 것을 지켜봐야 한다. 그것을 미리 안다면 그 경우 너희는 아버지를 기억하기를 잊을 것이다. 마지막 장면들을 보기 위해서 너희는 마하비르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흔들림 없이 부동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몸을 벗기 위해서는 너희의 단계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옴 산티. ‘옴 산티’의 의미를 이미 너희 자녀들에게 설명해주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고 얘기하며, “어떻게 해야 저희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다. 아마 그것에 관한 책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너희 자녀들에게 설명해왔다. 너희들도 역시, “옴 산티”라고 한다. 그 의미가 무엇이나? 일부는 ‘옴’이 신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도 역시, “옴 산티”라고 한다. 옴은 ‘나 (영혼인 나)’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의 몸’이라고 한다. 따라서 “옴 산티”라고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영혼 자신이다. 원래 나의 종교는 평화이며, 나의 거주지는 평화의 나라, 니르바나의 나라다. “나는 평화의 화신이다”라고 영혼이 제 스스로를 소개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 아버지도, 옴 산티, 한다. 나는 자녀인 너희들 모두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다. 나 역시 평화의 나라의 주민이다. 너희 영혼들은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기 위해 여기서 몸을 택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화는 문제가 될 수 없다. 아무도 ‘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 마음의 평화를 찾아 배회한다. 몸이 없으면 영혼은 평화롭다. 그가 몸에 들어오면 신체기관들은 틀림없이 기능을 시작할 것이다. 너희들은 행동의 장에서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한다. 따라서 평화에 관한 책을 쓸 필요가 없다. 이를 이해하는 데는 단 1초면 된다. 영혼 스스로, “옴 산티”라 한다. 그러니 무엇이 더 너희에게 필요하겠느냐? 평화가 어디서 오겠느냐? 영혼들의 나라가 바로 평화의 나라다. 너희가 지금 그리 가서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각자의 배역을 연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에게서 해방된 삶을 차지하기 위해서 책은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1초의 문제다. 그들이 책을 쓰는 것은 지식의 길이 아닌, 신봉의 길에서다. 그럼에도 바깥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마음의 참된 평화’와 ‘참된 기타’에 대해서 진정으로 설명하는 글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각은 “네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고, 평화의 나라와 행복의 나라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의 마지막 생각이 너를 목적지로 인도할 것이다”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없다. 평화의 나라는 아버지와 우리 영혼들이 거주하는 니르바나의 나라다. 그들은 루드라의 염주에 관해 얘기한다. 그러므로 루드라의 지식의 희생의 불은 단 하나다. 오직 지식의 대양 아버지만이 이 지식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식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과학에 대한 지식, 다양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그것은 상호작용에 대한 측면이다. 지식을 가지면 사람들은 매우 총명해진다. 너희 자녀들은 여기서 세계의 시작, 중간, 끝에 대한 지식을 받았다. 이것은 공부하는 배움터이며 여기서 너희는 가르침을 받는다. 아버지는 지식의 대양이고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다. 그는 모든 베다들과 경전들을 안다. 오직 나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설명한다. 그럼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말해봐라. 신이 편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냐?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편재하는 이에게서는 너희가 어떠한 지식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너희들은 노력할 수 없다. 만일 편재한다면 그가 뭘 하겠느냐? 그는 주인이다. 신은 결코 불순해지지 않는다. 그는 언제든지 원할 때 떠날 수 있다. 여기서 영혼들은 불순하기 때문에 아무도 집에 돌아갈 수 없다. 너희가 불순해지면 지식은 전부 다 사라지고 지각은 더러워진다. 너희는 요가를 할 수 없다. 기억에 장애가 생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 되는 행위를 행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기억해야 한다. 아버지 없이는 너희들의 과거의 죄가 잘려나갈 수 없다. 너희가 하리드와르에서 산다고 너희의 죄가 잘려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만일 현인들과 성자들이 그들의 집이 평화의 나라라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거기에 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바바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비전으로 보여준다. 다시 말해, 너희들은 거기에 있었던 적이 있다. 신봉의 길에서도 역시 사람들은 신성한 시선을 통해서 비전들을 받는다. 황금시대에 너희는 육안으로 락쉬미와 나라얀을 볼 것이고, 그들 역시 너희를 볼 것이다. 지금 너희들은 비전으로 그들을 본다. 바바는 신성한 비전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다. 다른 누구도 그것을 가질 수 없다. 다른 누구에게도 이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바바가 이미 설명했다. 대신에 나는 천국의 왕국을 다스리지 않는다. 그는 균형을 똑같이 유지한다. 너희들은 세계의 주인이 된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신봉의 길에서 비전을 볼 때는, 그 신상에는 힘이 전혀 없다. 바바가 이르는데, 나는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비전들을 보여준다. 그들이 가네쉬나 하누만 등을 숭배한다면, 나는 그들이 그를 비전으로 보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신이 모든 이의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내가 편재한다고 얘기한다. 그들은 지식을 잘못 이해했다. 사실 모든 이가 다 형제이며 각자의 안에 영혼이 들어있다. 모든 이가 다 아버지일 수는 없다. 영혼들 모두 소리쳐 부르며, “오 신 아버지,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한다. 이처럼 모든 이가 다 자녀들이다. 아버지에게서 각자의 유산을 차지할 때 자녀들은 몸에 대한 교만을 버려야 한다. 영혼인 나는 아버지에게서 내 몫의 유산을 차지하고 있다, 그게 전부다! 영혼은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불릴 수 없다. 그가 여자의 의상을 입고 있을지라도 “나는 내 몫의 유산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다. 모든 이가 다 아버지에게서 각자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아무개다”라는 것은 전부 다 육신의 종교들이다. 영혼은 하나뿐이고 바뀌는 것은 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회교도다, 이 사람은 힌두교도다”라 하는 것이다. 영혼의 이름은 바뀌지 않고, 몸의 이름은 바뀐다. 아버지는 지식의 대양, 정화자다. 아버지에 대한 찬양은 별개다. 그는 평화의 대양, 지식의 대양이다. 그와 요가를 함으로써 우리는 평화의 나라로 갈 것이다. 지금 이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요가는 다른 누구도 결코 가질 수 없다. 너희는 평화의 나라를 알지만 그러나 쉬브 바바를 기억한다. 산야시들은 자기들이 브람 원소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라고 한다. 그들은 브람 원소와 요가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죄가 없어질 수 없고, 그 요가는 잘못된 것이다. 브람은 거주 장소다. “브람 기야니” 또는 “타트와 기야니”라고 너희가 어떤 식으로 말해도 같은 얘기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이것은 그들의 착각이다. 브라마는 정화자일 수 없다. 영혼들의 아버지는 쉬바다. 그만이 정화자라고 불릴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집에 돌아갈 수 없다. 모든 이가 다 사토프라단한 데서 타모프라단하게 되어야 한다. 1등인 슈리 나라얀이 이렇게 될 때, 다른 모든 이들도 분명히 타모프라단하게 될 것이고 계속 환생할 것이다. 이것 역시 너희의 지각에 계속 들어있다. 다른 종교에 속하는 자들 모두가 몇 생이나 취하는지 이제 너희들은 안다. 신인들은 온전하게 84생을 다 취한다고 일컬어진다. 너희는 남들의 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계산해보면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는 각자 제 자신의 노력만 염려할 뿐, 다른 문제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만일 해방과 삶 속의 해방을 원한다면, 그 경우엔 ‘만마나바브’가 되어라. 나는 정화자다. 내가 와서 너희에게 라자 요가를 가르친다. 정화자는 동시대가 아닌 철시대의 마지막에 올 것이 확실하다. 그냥

“쉬브 라트리”라고만 적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들은 ‘트리무르티 쉬브 라트리’라고 써야 한다. 신봉에는 극심한 어둠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 “지식의 태양이 떠오를 때...”라 한다. 그것은 철시대의 끝일 것이 분명하다. 황금시대에는 계몽의 빛이 있다. 아버지는 반드시 합류시대에 올 것이다. 아버지가 와서 너희를 정화시키는 것은 오직 모든 이가 다 불순해졌을 때뿐인데, 왜냐하면 모든 이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많은 수의 산야시들도 역시,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영혼들의 원래의 종교는 평화다. 바라트의 사람들이 신인들을 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들은 그들 본연의 종교를 망각해버렸다. 라반이 자기를 평화롭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을 영혼은 안다. 너희는 지금 이때 이 지식을 받았다. 여기서는 너희가 결코 평화를 받을 수 없다. 평화는 오직 평화의 나라에서만 받을 수 있다. 모든 이가 다 그리로 가야 한다. 우리는 평화의 나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행복의 나라로 갈 것이다. 다른 종교에 속하는 자들은 많은 평화를 받고, 우리는 많은 행복을 받는다. 그들은 우리만큼 아주 큰 행복이나 아주 큰 슬픔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내용이다. 일부는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졌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집에 살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와 유산을 기억해라. 그러나 너희는 백성들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백성들을 만드는 자들은 왕, 왕비, 주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노력을 요한다. 영사기를 사용해서 설명하기는 쉽다. 저명인사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해줘라. 너희 자녀들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창안되고 있다. 너희들은 영어로도 영사기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 사이클 등을 보면 그들은 이것이 바라트의 철학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오직 아버지만이 이 지식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영적 지식이다. 오직 영인 분에게서만 너희는 영적인 지식을 받는다. 너희가 진짜 철학 박사들이다. 아버지는 영적인 의사다. 그는 영들에게 주사를 놓아준다. 너희의 모든 것은 은밀하다. 저 사람들은 앉아서 경전 등을 읽고, 그래서 대단히 존경받는다. 그들은 영혼들이 불순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영혼이 영향 받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들만이 참된 지식을 줄 수 있다. 그 버림은 유한한 반면 너희들의 버림은 오직 무한한 아버지만이 너희에게 설명하는 무한한 버림이라는 것도 역시 설명해주었다. 그것은 하타 요가이며 이것은 라자 요가다. 저 사람들은 하타 요가로 신체감각을 통제하려고 애쓴다. 너희들은 라자 요가로 너희의 신체감각들을 다스린다. 차이가 크다. 너희들은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지식으로 계속 충만해진다. 그러나 너희는 각자의 노력에 따라 등수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아버지를 너희가 얼마나 많이 사랑해야겠느냐? 이 사랑은 은밀하다. 영혼은 은밀하다. 자기가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을 영혼은 안다. 그는 너희를 슬픔에서 해방시키고 있다. 바바, 당신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매 사이클마다 와서 저희들에게 지식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잊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그래, 자녀들아, 이 지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다. 황금시대에는 이 지식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드라마 전체가 창조되었고, 차이는 전혀 있을 수 없다. 이 드라마는 예정되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계속 초연한 관찰자로서 계속 지켜봐라. 멸망은 일어나야 한다. 수립은 이루어져야 한다. 계속 초연하게 그것을 지켜봐라. 예를 들어, 만일 내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 해도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너희들은 모든 준비를 다 할 것이다. 초연한 관찰자로서 모든 것을 계속 지켜봐라. 주된 것은, “나를 기억해라”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지어 나까지도 잊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마하비르가 되어야 한다. 마하비르와 마하비르니 (여자 마하비르)들은 지식의 신들, 지식의 여신들이라고 불린다. 신만이 너희에게 요가를 가르쳐서 너희를 마하비르로 만드는데, 마지막에 지진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마하비르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너희는 노력가들이다. 너희들은 흔들림 없고 부동하게 머물러야 한다. 그것과 더불어 만일 너희가 바바를 기억하며 죽는다면 그것은 아주 좋다. 지식에서 흔들림 없이 부동한 자들은 그냥 어딘가에 앉아 있다가 몸을 벗을 테고, 그 다음에 그들은 가서 각자의 카르마티트 단계를 통해서 봉사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확고한 단계에서 몸을 벗고 서틀 리전으로 가야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 앗차. 바바에게서

유산을 온전히 다 차지하기 위해 너희 자녀들은 항상 각자 차트를 점검해야 한다. 너희들은 뭔가에 대해 의심을 키움으로써 공부하기를 중단하지는 말아야 된다. 바바가 거듭 이르는데,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테.

**실천 요지:**

1. 그 무엇에 대해서도 의심을 키움으로써 공부를 중단하는 일은 없게 해라. 너희 단계를 흔들림 없고 부동하게 만들어라. 한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해라.
2. 세부적인 것에 너희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너희의 지각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라.

**축복:** 몸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져서 “나”라는 말을 의식하며 원래의 너희들의 형태에 안정해 머물러라.

“나”라는 한 마디 말이 너희를 날게 만들 수 있고, 똑같은 “나”라는 한 마디가 너희를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다. “나”라고 할 때 너희들의 본래의 무체인 형태를 기억해라. 이것이 자연스러워지게 해라. 육체의식의 “나”는 끝나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몸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텐데, 왜냐하면 “나”라는 한 마디가 너희를 몸의 에고로 끌어들이어서 카르마의 굴레로 너희를 묶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무체인 영혼이다”라는 의식을 가질 때는 너희가 몸에 대한 의식을 초월해서 카르마의 굴레가 아닌,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솔로건:** 보장된 승리와 태평한 단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각에 완전한 믿음을 가져라.

\*\*\* **옴 산티 O M S H A N T I** \*\*\*